

GCF, 도이치뱅크 파트너 선정에 녹색 단체 반발

글로벌 석탄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독일 대형은행 도이치뱅크 GCF 이행기구로 선정
환경론자들 GCF 무결성에 의문 제기

출처 = <http://www.rtcc.org/2015/07/09/green-climate-fund-partners-with-deutsche-bank-to-green-fury/>

2015.7.10, Alex Pashley/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UN GCF가 석탄 사업에 자금을 대고 있는 도이치뱅크를 지난 7월 9일(목) 인증기구로 승인하면서 녹색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GCF는 대한민국 본부에서 열린 이번 10차 이사회에서 도이치뱅크를 비롯한 총 13개 기관을 인증기구로 승인하면서 GCF 자금을 수령,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이치뱅크는 독일 대표 투자은행으로, 석탄 프로젝트에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BankTrack 네트워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0억 유로를 지원했다.

이에 20개 이상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단히 낙심하고 실망했으며,” GCF는 “신뢰성을 잃을 실질적인 위험”에 처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도이치뱅크의 석탄사업 지원은 GCF의 목표인 탄소 저감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뱅크가 인권 모니터링에도 “매우 허술한” 전적이 있으며, 돈세탁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ActionAid USA 선임 정책 분석가이자 GCF 이사회 시민사회 “active observer” 두 명 중 한 명인 Brandon Wu도 이번 성명서에 서명했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GCF는 특히 최빈국과 최대 취약국 지원에 집중하여, 개도국 기후 행동을 위한 기금이여야 한다. ... GCF가 글로벌 최대 민간부문 석탄 자금 지원줄이자 시장 조작 및 돈세탁 등 여러 스캔들에 연루된 업체와 파트너를 맺었다는 것은 GCF의 비전, 소임과는 정말 동떨어진 것이며, 대단히 우려스럽다.”

GCF는 이런 비판에 공식적인 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

도이치뱅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저탄소 경제,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경로로의 패러다임전환 증진 및 자금지원이라는 GCF의 목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이치뱅크의 인증 신청서 평가에서 관계자들은 “도이치뱅크는 GCF의 기본 수탁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번역_도이치뱅크 GCF 이행기구 선정에 환경 단체들 반발]

말했다.

헬라 쉘홀츠 GCF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주 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며, "활발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GCF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길 바란다는 요구가 더 커져 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메릴린치은행 기후금융 전문가 Abyd Karmali는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GCF의 이번 결정을 지지했다. "GCF의 신뢰도에는 전혀 문제 없다. 기후재원은 주류 투자자에 접근하는 금융 중개 기관을 통해 확대될 것이다."

7월 9일(목)에 13개 인증기구가 승인되면서 GCF 인증기구는 총 20개가 되었다. 르완다 천연자원부, 미주개발은행 등도 포함되었다

거의 100개 기관들이 GCF 인증을 받기 위해 작업 중이다.

작년 주로 선진국을 통해 100억 달러를 마련한 GCF는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재정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금의 절반은 가뭄내성 작물 지원 등 최빈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데에 쓰여질 것이며, 나머지는 풍력 발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같은 프로젝트 등 개도국 경제 녹색화를 위한 자금이다.

하지만 이사회는 가장 탄소집약도가 높은 연료인 석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주의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2도씨 이내 제한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장되어 있는 석탄의 80%이상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